금호아시아나그룹 25년 형제경영 왜 막 내렸나

대우건설 재매각 여파 경영권 다툼

그룹 유동성 위기 책임소재 놓고 갈등

25년간 이어온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형제경영이 막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재계에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후폭풍을 꼽고 있다. 금호그룹은 65세가 되면 경영일선 퇴진을 불문율로 삼아왔다.

그러나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뒤 지난해부터 그룹 상황이 악화되자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을 향해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경영권을 요구했고, 이에 박삼구 회장이 맞서면서 급격하게 관계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대우건설 인수로 발생한 채권단에 대한 풋백옵션이 그룹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면서 그 책임소재를 놓고 두 형제가 경영권 다툼을 벌였고 '동반퇴진'이라는 배수진으로 '형제의 난'이 1차 마감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호석유화학을 단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를 둘러싼 지분경쟁이 관계악화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금호그룹이 지난달 28일 대우건설을 되팔기로 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박찬구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 금호타이어 부장은 이달 들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대폭 늘렸다. 박찬구 회장이 집중적으로 지분을 사들이기 전까지 박삼구 회장 부자와 박찬구 회장 부자는 각각 10.01%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갖고 있었다.

박삼구 회장 부자도 금호석유화학 지분이 늘었지만, 현재 박찬구 회장 부자의 지분율은 18.47%이고, 박삼구 회장 부자의 지분율은 11.77%로 무게중심은 동생 박찬구 회장 쪽으로 기울었다.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

금호그룹은 지분 구조 변동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 위한 준비라고 밝혔지만,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동반 퇴진이라는 결과를 보면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분쟁의 과정으로 보는 게 설득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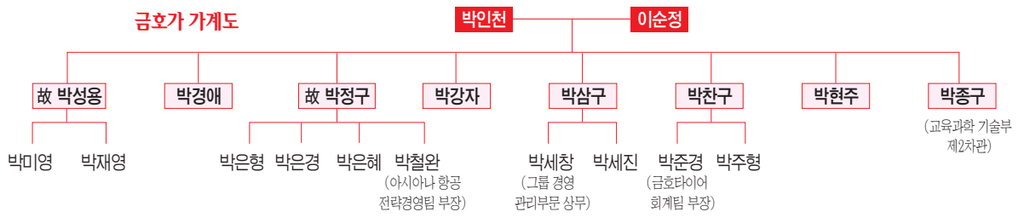
박삼구 회장 측은 고 박성용, 박정구 회장 자녀의 지분까지 합해 총 28.18%에 이르는 지분으로 박찬구 회장의 대표직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내에서는 박삼구, 박찬구 형제의 동반 퇴진을 승인한 셈이지만, 박찬구 회장 측이 해임 의결에 대해 반발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등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재계에서는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지분 확대에 대해 대우건설 재매각 사태에서 불거진 박삼구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그룹 지배구조 변화를 시도하면서 형 대신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박삼구 회장의 동반 퇴진도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따른 퇴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속내가 담겨 있는 듯하다. 자연스러운 경영권 승계는 용인할 수 있어도, 현직에 있는 한 형제간 경영권 교체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생이 그룹 경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했다"

박삼구 회장 퇴진 일문일답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은 28일 오후 긴급 기ㄴ자회견을 열고 명예회장으로 경영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박찬구 회장을 직접 해임한 건지. 박 회장은 해임을 순순히 받아들였는지.

▲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서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이사회의 결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박찬구 회장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 해임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법과 계약은 지켜줘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다.

-금호석유화학 중심 체제에 문제는 없는지.

▲ 원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유석유화학이 지주회사다.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에 금호산업이 지주회사가 돼버렸으나 실질적인 지주회사는 금호석유화학이다. 대우건설을 다시 팔게 되면 금호석유화학 지주회사 체제로 돌아갈 것이다.

-명예회장으로 물러난다면 맡게되는 역할은.

▲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 그룹회장이 그룹경영을 책임지고 경영하게 된다. 나는 계열주주로서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박찬구 회장이 그룹경영을 뒤흔드는 처신을 했다고 하는데.

▲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금호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룹 지배구조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박찬구 회장이 본인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여러가지 해 그룹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그룹 유동성에 관한 많은 루머와 우려하는 시각이 생겼다. 시장에서 우리 그룹의 분란이 주가나 신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그룹이 일사불란하게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신뢰도도 올라가고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너십을 잠시 포기한 상태인데. 전문경영인 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 선대회장들과 후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내가 유고 상황이 되면 내부 전문경영인이나 외부에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그룹 회장으로 영입을 해서 그룹을 이끈다는 것이다. 후임에 대해서 고심한 끝에 박찬법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연합뉴스

금호그룹서 잔뼈 굵은 '스타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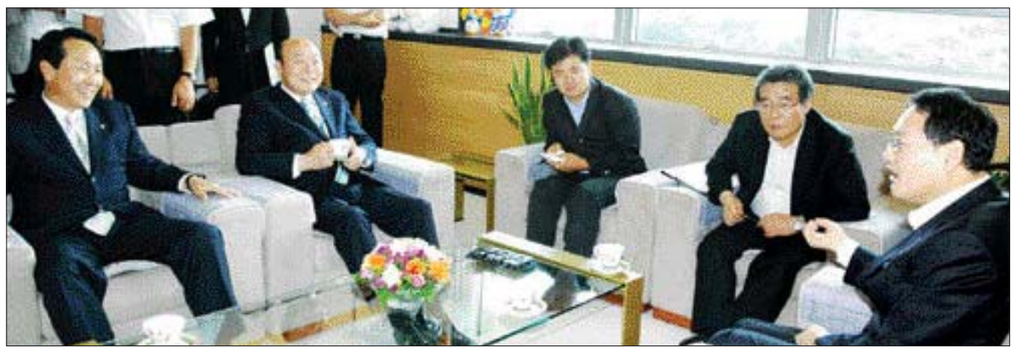
새 회장 추대 박찬법

28일 금호아시아그룹 오너 일가의 동반 퇴진으로 사상 첫 전문경영인으로 회장에 추대된 박찬법 전 항공부문 부회장은 금호그룹은 물론 업계에서도 '스타 CEO'로 불린다.

박찬법 회장은 1945년 영광 출생으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69년 그룹 전신인 (주)금호에 입사한 후 금호실업으로 자리를 옮겨 1976년 회사가 국내 11번째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는데 공헌했다.

박 회장의 진가가 발휘된 것은 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설립하면서 부터다. 1990년 영업담당 상무로 아시아나항공에 몸담은 2001년 사장, 2005년에는 부회장에 선임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존립 기반을 다졌다.

이름이 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와 비슷하지만 선대 회장이나 박삼구 명예회장 등과의 혈연 및 학연 관계는 전혀 없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옛 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가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옛 도청 별관 문제 해법에 대해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영택 국회의원, 박광태 광주시장, 선주성 문광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병훈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유 장관. 〈광주시 제공〉

박시장 "오월의 문 수용을" 유장관 "나중에 욕 먹을 것"

'도청별관' 면담 무슨 얘기 오갔나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28일 '10인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대책위가 제시한 '5월의 문'(별관의 1, 2층 일부를 헐어내 문을 만드는 것), 3분의 1 존치안을 포함해 원형보존, 완전철거안 등 4개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10인 대책위는 대안 중 하나를 택일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해 이날 면담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이날 면담 내용을 종합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광태 광주시장, 민주당 조영택(광주시 서구 갑) 의원 등 10인 대책위가 제시한 2개 대안에 대해 유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 '1/3존치안'이나 '도청별관에 게이트(5월의 문)를 내는 안' 등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지만 둘 다 옹색해서 안타깝다"며 "이 두 안 모두 지역갈등을 조정하려고 내놓은 안인데 나중에 욕 먹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개안 모두 보존도 아니고 해체도 아니어서, 역사적으로 더 훼손될 우려가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1/3존치안, 게이트안보다도 중요한 것은 5·18의 살아있는 정신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전당 원설계안대로 가되, 시민들이 원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도청별관을 전체적으로 원형 보존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시장은 "도청별관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 차선책으로 '도청별관에 문을 내는 안'과 '1/3존치안' 중에서 하나를 정부가 받아들여줘 지역갈등을 조기에 해소시키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박 시장은 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도청에 문을 내는 안'을 다수안으로 3분의 1 존치안을 소수안으로 내놓았는데 이왕이면 게이트안을 받아들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영택 의원도 "2개의 안은 10인 대책위가 고심 끝에 선정한 것이므로 2개의 안 중에서 1개의 안을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가 2개안 중에서 1개의 안을 받아주게 되면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설득은 10인대책위에 맡겨주면 좋겠다. 선출직인 광주시장, 광주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기 때문에 10인대책위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10인 대책위는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10인 대책위는 면담결과 발표문에서 "10인 대책위가 건의한 2개 안에 대해 설계자의 기술적 자문과 조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안을 검토해 통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10인 대책위에서는 건의한 2개 중재안에 대해서 하나의 안이 선택될 것으로 믿고 다수의 시민들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종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18사적지 원형보존을 위한 광주전남시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 박광태 시장이나 유인촌 장관이나 상식적인 역사인식이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도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민대책위는 "이미 원형보존이 아니면 5월의 문 방식의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시도민대책위는 두 가지 중 하나로 도청보존을 위한 전향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